

지역 최초 '이케아' 팝업스토어 오픈...인파 '복적'

롯데백 광주점, 8월17일까지 운영 가구·생활용품·식품·인형 등 '다채' 로고 배경 포토존서 인증샷 '인기' "광주·전남에 정식매장 오픈했으면"

"이케아 오프라인 매장이 너무 멀어서 매번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했는데, 가까운 곳에 팝업 매장이 생기니 직접 눈으로 보고 구매할 수 있어 좋네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지역 최초로 선보이는 '이케아(IKEA)' 팝업스토어에 지역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팝업스토어 오픈으로 이케아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기 위해 타지로 이동해야 했던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들보다 가까운 곳에서 글로벌 홈퍼니싱(home furnishing) 브랜드 이케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찾은 롯데백화점 광주점 9층 이케아 팝업스토어. 평일 오후임에도 팝업스토어 입장 대기 줄은 물론,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을 기다리는 대기 줄이 끊이지 이어지는 등 매장 안팎은 발 디딜 틈 없이 복적였다.

5~10분가량의 대기 끝에 매장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왼편에 진열된 다양한 색의 욕실 매트 '토프트보'를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매장 내부 공간을 나누는 매대 위에는 식기, 지퍼백 등 주방용품부터 이동식 서랍 유닛, 수납함, 스톨, 조명

등 소형 가구 및 홈퍼니싱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돼 있었다. 지역민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진열된 상품들을 살펴보고 매장 내에 비치된 장바구니에 필요한 물건을 담으며 쇼핑을 즐겼다.

이케아 대표 상품 중 하나인 '붕제 인형'의 인기도 높았다.

이미 많은 제품이 팔려나갔는지 골든리트리버 붕제 인형이 담겨있는 진열대는 두 개 이상 비어 있었고 인형 매대 근처에서는 아이들이 "인형 하나만 사달라"며 부모님을 설득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북극곰 인형, 판다 인형 등도 시선을 끌었다. 이외에도 '독티그(DUKTIG)' 주방 놀이 세트 등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제품이 마련돼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구 및 홈퍼니싱 액세서리 제품뿐만 아니라 이케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운영 중인 '스웨디시 푸드마켓'의 다채로운 푸드 제품도 소비자들의 발길을 붙들었다. 이케아를 대표하는 맛의 아이콘인 '후부드롤(HUVUDROLL) 미트볼'을 비롯해 '세라포르트(SJORAPPORT) 연어필레', 동물성 재료가 들어가지 않은 '레틀라가트(LATTLAGAT) 플랜트볼+오렌지' 등이 눈에 띄었다. 한 지역민은 '카페레프(KAFFEREP) 비스킷'을 집어들며 함께 온 친구에게 "신기하게 생겼다. 먹어보자"고 웃어 보이기도 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지역 최초로 선보이는 이케아(IKEA) 팝업스토어에 지역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매장 한편에는 가정집 생활공간처럼 공간을 연출해 다양한 가구와 생활용품들을 한눈에 선보이는 자리도 마련돼 있었다.

이곳은 깔끔한 화이트톤의 침대와 옷장, 4단 서랍부터 전신거울, 무드등, 액자까지 이케아 상품으로 꾸며진 침실 공간과 높이 조절 책상, 책장·책꽂이, LED 작업등, 사무용 의자, 노트북 및 컴퓨터 받침대 등이 한데 모여 새재처럼 꾸며진 공간 등이 갖춰져 있어 소비자들께서 가구 배치 등을 한눈에 보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거실에 놓을 수 있는 2인용 소파와 보리에비 커피 테이블 등 각 공간에 어울리는 다양한 상품들

이 준비돼 있었다.

9층 팝업 매장과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정문엔 설치된 '포토존'도 인기를 끌었다.

이케아를 대표하는 제품 중 하나인 '프락타(FRAKTA) 장바구니'를 초대형으로 선보이는 포토존은 물론 원숭이 붕제 인형과 이케아 로고를 배경으로 조성한 공간에도 인증사진을 남기려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팝업 매장을 방문한 지역민들은 "이케아 상품을 가까운 곳에서 구매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케아 오프라인 매장은 처음이라는 장

성재(41)씨는 "내와 함께 가구를 보러 왔다가 식기 등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구매했다.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사용하기 좋은 용품들도 눈에 띄었다. 이케아 상품은 온라인으로만 구매해 봤는데, 지역에 팝업스토어가 생기니 직접 매장에서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어 좋다"며 "아쉬운 점은 매장이 생각보다 작아서 원하는 가구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민 장모(38)씨는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평일인데도 사람이 많아서 입장부터 계산까지 대기시간이 꽤 걸렸다. 광주에 정식 매장이 들어선다면 지역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상품을 직접 보고 구매하고 싶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야 했는데,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팝업스토어가 생기면서 편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팝업 운영 기간 동안 이케아를 종종 찾을 것 같다. 오늘은 평소 자주 사용하는 지퍼백 등 간단한 제품을 구매했지만, 다음에는 가구도 살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케아 팝업 스토어 롯데백화점 광주' 오픈 기념 이벤트도 다양하게 펼쳐진다. 초대형 '프락타(FRAKTA) 장바구니'는 11일까지 선보이며, 14일까지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풍선을 선착순 증정하고 16일까지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글·사진=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광주신세계가 '하나은행 K리그1 2025' 개막을 앞두고 광주FC 팬들을 위해 스포츠 브랜드 '골스튜디오'가 함께하는 팝업스토어를 연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 광주FC 스포츠 브랜드 팝업 '눈길'

본관 지하 1층 연결통로서 할인쿠폰·증정품 이벤트 진행

광주신세계가 '하나은행 K리그1 2025' 개막을 앞두고 광주FC 팬들을 위해 광주FC와 스포츠 브랜드가 '골스튜디오'가 함께하는 팝업스토어를 연다. 이번 팝업으로 광주FC 구단의 새로운 유니폼을 직접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본관 지하 1층 연결 통로 이벤트홀에서 광주FC와 '골스튜디오'의 팝업스토어를 연다.

골스튜디오는 모든 이들의 크고 작은 꿈을 응원한다는 'LIVE THE GOAL (자신만의 꿈을 위해 살아가라)'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스포츠 아이템을 선보이는 브랜드다.

올해부터 골스튜디오는 광주FC와 파트너십을 맺고 광주FC의 유니폼 및 패키지 의류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팝업에서는 최근 새롭게 출시된 광주FC의 유니폼뿐만 아니라 골스튜디오의 다양한 의류 및 신발도 함께 구성돼 고객들의 발길을 붙잡을 예정이다.

이번 2025시즌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유니폼 'Light of Glory Season 2'는 '빛'을 콘셉트로 광주만의 상징과 의미를 표현한 그래픽을 삽입해 광주의 정체성을 녹여낸 것이 특징이다.

광주FC 팬들을 위한 프로모션과 이벤트도 다채롭게 마련했다.

골스튜디오 의류 10만원 이상 구매 시 광주FC 브로마이드를 증정하고 2025 골스튜디오 가방 구매 시 키링을 증정한다.

'LIVE THE GOAL' 이벤트는 팝업매장 내 응모함에 2025년 시즌 광주FC에 대한 응원메시지 남기면, 참여고객 모두에게 15%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더불어 추첨을 통해 광주FC 2025 홈 유니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나다운 기자

"AI 스타트업 창업사업화 자금·해외 진출 지원"

AI사업단, 20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3년간 최대 6억원...AI 인프라 활용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혁신적인 빅데이터·AI 스타트업을 발굴해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다.

10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빅데이터·AI 분야 참여기업 모집을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창업진흥원이 전담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빅데이터·AI 분야를 주관한다.

AI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쟁력

을 보유한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창업 10년 이내의 빅데이터·AI 분야의 스타트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이어야 한다.

AI사업단은 총 18개 기업을 선발해 최대 3년간 6억원의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보유 기술 고도화 △데이터 품질 검증 서비스 지원 △대·중견기업과의 협업 △시장 확대를 위한 실증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특히, AI 기반 시험·분석 및 데이터 품질 검증 서비스를 지원해 기술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인증과 규제 대응을 위한 인증·인허가 컨설팅을 지원해 해외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광주 첨단 3지구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이하 AI 집적단지) 내 AI 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는 AI 가속기를 활용해 초거대 AI 모델 개발 및 데이터 분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중견기업과 협력해 시장 확대 및 기술 적용 사례 확보를 위한 실증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0일까지 K-Startup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병하기자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 출시

아웃도어 감성 디자인 선택

현대자동차는 11일 캐스퍼 일렉트릭에 아웃도어 테마 디자인을 입힌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 (사진)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는 기존 캐스퍼 일렉트릭의 디자인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아웃도어 환경을 즐기는 고객의 입맛에 맞춰 튼튼하고 강인한(러기드, Rugged) 매력을 입힌 모델로, 당장이라도 험로 위를 거침없이 치고 나갈듯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전면부는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만의 전용 디자인을 적용한 '크로스 라디에이



터 그릴'과 '반광 그레이 메탈릭 스키드 플레이트'가 어우러져 한껏 단단한 인상을 갖췄고, 프로젝션 타입의 Full LED 헤드램프를 기본으로 탑재해 고급감도 놓치지 않았다.

측면부 역시 크로스 전용 디자인의 17인치 알로이 휠과 사이드 몰딩이 적용돼 스포티함을 한층 강화했고, 오프로드 감성을 원

하는 소비자의 취향을 고려해 루프랙을 기본 적용했다.

후면부의 새롭게 디자인된 LED 리어 콤비 램프는 픽셀 그래픽의 리어 범퍼와 함께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의 아이코닉함과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강조해준다. 또한 현대차는 아웃도어 활동을 선호하는 고객을 위한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 전용 루프 바스켓을 새롭게 준비했다. 전용 루프 바스켓은 애프터마켓 공식 온라인몰 '현대샵'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의 판매가격은 3190만원이다.(환경친화적 자동차 세계 혜택 적용 기준)

현대차는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 출시에 맞춰 11일부터 28일까지 계약고객 굿즈 증정 이벤트를 펼칠 계획이다.

박소영 기자